

'하세월' 도심 재개발... 커가는 주민 불편

광주 동구 계림 4구역·화정 2구역 등 10년 넘게 답보 노후 주택 방치·슬럼화 가속... "차라리 해제해달라" 요청도

광주지역 주요 도심 재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노후 주거지 방치로 인한 거주민 불편이 커지는가 하면, 슬럼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행정 절차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생겨나는가 하면, 아예 사업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개발사업 차질 잇따라=광주시 동구는 계림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조합측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제외하고 총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만큼 다시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감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계림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시 동구 계림동 경양파출소 인근 4만5700㎡ 일대 부지에 17층~25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930가구)을 짓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아파트 건설을 위한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조합측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계림 4구역 뿐 아니다. 동구지역 15개 재개발 정비사업지 중에도 관련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법원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난 1 재개발정비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뿐 여태껏 조합조차 설립조차 못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최근야 사업 대상지를 축소해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학동 남광주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학동 2구역 재개발정비사업도 지난 2004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15년 가까이 조합도 설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췄다.

사업예산만 1조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던 조합측

은 미진한 분야를 보완, 교통·건축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6년 가까이 노후화된 주거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방치, 주민 불편·슬럼화 우려=광주시 서구는 법원 판결로 중단된 '화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LH의 사업 시행자 지위가 무효화된 만큼 주민 동의절차를 다시 밟아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한 이후 보상 절차까지 다시 밟아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하지만 동의 절차가 윤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지구 지정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지만 '적법한 동의절차'를 받지 못한 서구의 허술한 행정으로 지난 5월 중단된 상태다. 축구장 3개 크기(2만5000㎡)의 공사는 그대로 멈춰섰고 주변에는 답답할 정도로 높은 펜스가 둘러싸였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치려고 추진한 사업이 미뤄지

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불편을 참아야 하느냐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계림 3, 계림 1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만 설립했을 뿐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참다못한 주민들 사이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인데,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주거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이대로 시간이 가면서 우범화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급기야 광주 동구 동명 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참다못한 주민들의 요구로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됐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해체된 셈이다.

한편,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34개), 주택재건축사업(16개), 주거환경개선사업(70개), 소규모주택정비(3개) 등 123곳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5.01 (-6.48)	↓ 금리(국고채 3년)	1.85 (-0.01)
↓ 코스닥	669.79 (-3.85)	↑ 환율(USD)	1125.20 (+2.80)

"BMW 차 결함 탓 화재... 알고도 은폐"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정부, 과징금·추가 리콜 등 조치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은폐·축소하고 '녹장 리콜'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BMW는 이미 2015년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독일 본사에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게 조사단 입장이다.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술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BMW 차량 화재 원인과 관련,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클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 클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 오일 등과 섞여 EGR 클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기존에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사단은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EGR 클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처음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클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동조사단은 또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녹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도고 발표했지만, BMW는 이미 2015년 1월 독일 본사에 EGR 클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이는 BMW가 2015년 EGR 클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다기관에 천공(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녹장 리콜'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000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녹장 리콜'로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 나눔' 소외이웃돕기 84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맨 오른쪽)은 지난 21일 오후 본점 1층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9 나눔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 84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추운 겨울날씨에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이마트 광주점' 양도 확정

'이마트'에 41억3700만원 (주광주신세계가 이마트 광주점을 ㈜이마트에 양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주광주신세계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광

주신세계의 이마트 부문을 ㈜이마트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광주신세계의 이마트부문의 양도가격은 41억3700만원으로, 양도는 2019년 1월 1일자로 이뤄진다.

이번 양도는 '백화점 사업부문으로의 사업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광주신세계는 이마트 광주점을 넘겨줘 백화점 사업부문에 집중할 수 있고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마트 광주점을 포함해 대형마트 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신세계측 입장이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이번 양도 안건이 주

주총회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마트와 복합쇼핑몰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과 백화점·면세점 등을 이끄는 정영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의 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소 유공자 포상 신청 내달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부는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이다.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부문

이다.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표창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에 공지된 '2019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중기중앙회 포상담당팀 전화(02-2124-4368-4370)로 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예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은 이광진 장경수 김동준 우정민 윤소이 김걸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